

## ‘위드 코로나’ 임박...일상 회복 현실화되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1%...1차 접종 완료율 80% 육박  
지역 자영업자들, 규제 풀리면 매출 회복 기대감 높아  
전문가 “방역 체계 아직 끝난 것 아냐...관심·노력 필요”**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다음달 원활하게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

인들은 모임·회식 등이 활발해지면서 운영난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다만,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잘못된 인식된 ‘위드 코로나’로 재확산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에

따르면 백신을 권고 횡수대로 모두 완료한 국민은 이날 0시 기준 누적 3천597만5천412명으로 총 인구의 70.1%를 기록했다.  
접종 완료율 70%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돌파했다. 이날은 지난 2월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이후 240일째, 2차 접종을 시작한 3월 20일 이후 218일째 되는 날이다.  
전남의 경우 24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도민 184만명 중 135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74.1%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1차 접종률은 81.9%다. 지난 1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 90.4%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 중이다.  
광주에서는 전체 시민 144만명 중 113만명이 1차 접종을 맞아 78.4%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2차 접종자수는 68.7% (98만9천964명)이다.  
정부는 최근 11월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 70% (18세 이상은 80%) 이상 접종 완료, 고령층 90% 이상 접종 완료를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표 기준치를 충족하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드 코로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등 단계적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에 지역 자영업자들은 규제 완화 시 매출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 확진자 수도 최근 한자리 수를 기록,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15명 발생에서 22일 5명, 23일 9명, 이날 5명 등 사흘 연속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도 지난 22일 9명, 23일 4명, 이날 2명이 발생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일 확진자가 치솟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단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한 소방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서 “잘못 인식된 위드 코로나는 자칫 어렵게 만든 방역체계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지·임후성 기자

## 이재명-이낙연, 원팀 회동...“정권재창출 협력”

洛,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  
지지자들 화학적 결합 속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24일 ‘원팀 회동’을 했다.

지난 10일 경선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이 후보측 박찬대 의원, 이 전 대표측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각각 배석했다.

이번 회동은 경선 기준으로는 14일, 이 전 대표가 승복 선언(13일) 기준으로는 11일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원팀 회동’에서 “정권재창출”을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 전 대표가 먼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당원 지지자께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는 상처가 아물도록 당 지도자가 앞서서 노력했으면 한다”며 “저를 지지해 준 분을 포함해서 경선에서 뜻이 맞지 못한 모든 분에게 제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인생으로나 당 활동 이력으로나 삶의 경로나 역량이 뭐 무엇이 하나 부족함 없는 대표님이신데 제가 앞



**포용하는 명-낙**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이후 첫 회동을 위해 24일 오후 서울의 한 찻집에서 만나 포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으로 민주당뿐 아니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정권재창출하는데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같은 DNA를 갖고 있는 팀원”이라며 “대표님이 품 넓게 모든 걸 수용해주고 정권재창출에 모

든 일을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제가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는 또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선대위 참여 방안도 참

모간 논의를 통해 모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선대위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대위에 후보 직속의 제1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1천700원 ‘홀쩍’ 휘발유 7년만에 최고가 기록

23일 기준 광주 1천731.65원·전남 1천740.29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를 돌파, 7년만에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계다가 10월 셋째주(10.18-22) ㄹ 당 평균 가격은 광주 1천715.04원, 전남 1천720.34원으로 전주(광주 1천674.67원·전남 1천678.72원) 대비 무려 40원 넘게 경증 뛰었다. ▶관련기사 13편

유류세 인하 종료와 국제 휘발유값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9년 2월 첫째 주 상승폭(80원) 이후 주간 상승폭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광주 휘발유 가격은 ㄹ 당 1천731.65원, 전남은 1천740.2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16일 광주 1천702.65원, 전남 1천705.42원으로 1천700원을 돌파한 후 10일 가까이 상승한 것이며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일주일 새 두 지역 다 40원 넘게 뛰어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3일 기준 광주는 1천531.21원, 전남 1천538.51원이었으며 10월 셋째 주 광주는 ㄹ 당 1천514.57원, 전남은 1천517.86원으로 전주(광주 1천472.23원·전남 1천475.09원) 대비 40원 넘게 오르며 휘발유 가격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던 지난 2008년에 유류세를 10%, 2018년-2019년에 15%, 7%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로, 유류세를 30% 인하할 때 휘발유는 ㄹ 당 269원, 경유는 198원 가량 인하 효과가 있다.

한편,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오른 배럴당 83.2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2.6달러 오른 배럴당 9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0.9달러 오른 97.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고용시장 개선 지속, 모건스탠리의 내년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수희기자

Today	
2021국제농업박람회 가보니...	5면
망월묘역 '전두환 비석' 사연	6면
LPGA 한국인 '200승' 쾌거	16면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